주가	환율	금리
-20.81	+1.20	보합
1,334.08 (코스피지수)	957.50원 (원/달러)	4.73%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91.96	(-5.72)
다우(8일)	11,392.11	(+60.67)
나스닥(8일)	2,165.79	(+10.50)
닛케이	15,794.38	(-286.08)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25엔	(+0.76)
유로 달러 환율	1.2687달러	(-0.21)
3년만기 회사채	5.06%	(+0.01)
콜금리	4.47%	(-0.01)

광주지방국세청장 '따뜻한 세정' 나서

권춘기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관내 세무서를 방문, 국세청 세정목표인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는다.

권 청장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방안,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책, 세수확보 등 하반기 현안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각 지역 세무서의 특성과 실정을 파악해 이를 세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문일정은 ▲12일=전주·북전주·정읍세무서 ▲13일=여수세무서 ▲14일=남원세무서 ▲19일=군산·익산세무서 ▲21일=목포·해남세무서 ▲22일=서광주·북광주세무서 등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수익금으로 주민세 대납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농업개방 등으로 농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금 일부로 조합원 주민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

지역본부에 따르면 27개 지역농협에서 최근 3년간 8만8천여명(가구당 4천100원)의 주민세 3억6천10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도움으로 농협이 성장한 만큼 조합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수익금을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주민세를 대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aT 광주·전남지사, 심비디움 수출 컨설팅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신광수)는 12일 일본 심비디움 재배전문가인 쿠니모토 아츠시씨를 초청, 나주 남평농협에서 수출컨설팅을 실시한다.

일본 화훼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쿠니모토씨는 나주서양란원예조합 등 심비디움 재배농가와 수출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재배기술, 품질관리 및 비배관리 등에 관해 컨설팅하게 된다.

신광수 지사장은 "심비디움 수출농가들에게 고품질 선진 재배기술을 전수해 품질향상과 수출마인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백화점 경기 "안풀리네"

신세계·롯데·현대 '광주 빅3' 성수기 불구 매출 부진

요즘 광주지역 백화점 관계자들은 성수기인 가을을 맞았는데도 표정이 밝지 않다.

8월말과 9월 초부터는 백화점이 성수기로 접어들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가을 상품 판매 실적이 영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대부분 백화점들의 8월말~9월초 판매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오히려 역 신장했다.

지난달 백화점 리뉴얼공사를 한 광주신세계의 경우 구체적인 매출실적을 밝히진 않고 매출이 다소 감소했다고 하지만, 동종업계에선 역신장세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광주신세계와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폭이 다소 크다.

초가을 매출 하락은 경기침체와 날씨, 10월 추석,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백화점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광주지역 경기가 다른 지역보다 좋지 않은데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은 전형적인 가을이지만, 낮 기온이 섭씨 30도에 육박해 백화점 가을 상품의 리더격인 의류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

여기에 예년과 달리 추석이 10월에 들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시점을 미루고 있는 것도 9월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성수기 매출이 줄어들면서 백화점마다 추석 마케팅을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일부터 추석선물세트 예약주문 서비스에 들어가는 등 각 백화점마다 추석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석선물세트 품평회를 열어 매출감소세 만회를 노리고 있다.

모 백화점 관계자는 "8월 중순부터 가을상품이 매장에 입점했는데도 매출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좋지 않다"며 "성수기인 가을이 왔지만 가을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역 상장법인 10곳중 3곳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다

14개사 상반기 영업이익 1,000원 중 빚 갚는데 307원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10개사중 3개사꼴로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소재 상장법인중 유가증권소속 기업 14개사의 올해 상반기 이자보상배율은 평균 3.25배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63배 떨어졌다. 영업이익으로 1천원을 벌여 이 가운데 빚 갚는데 307원을 쓴 셈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내 기업 전국 평균 이자보상배율 8.63배의 절반에도 못치는 것으로 지역기업들의 열악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의 기업도 로케트전기(0.71), 대유디엠씨(0.09) 등 전체의 28.5%에 해당하는 4개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시트·핸들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엠앤에스와 고려시멘트는 영업손실 발생으로 이자보상배율 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처럼 지역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된 원인은 금융비용은 54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인 111억원이 감소한데 반해 영업이익은 1천92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0.7%인 854억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자수익이 이자비용과 같거나 많아 금융비용이 없는 회사는 광주신세계, 화천기공, 셀런, 한국화인케미컬, 동아에스텍 등 5개사 였고 이 가운데 광주신세계, 화천기공, 동아에스텍 등 3개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비용이 0원이었다. 더구나 광주신세계와 동아에스텍은 2년 연속 이자비용이 없는 '무차입경영'을 해 눈길을 끌었다.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 김훈휘 소장은 "이자보상배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조선내화(24.63)와 백광산업(21.83)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지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친다"며 "기업을 하다보면 금융비용은 어쩔수 없다고 볼때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늘려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자보상배율=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이자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상환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다.

국제금값 온스당 600달러선 붕괴

유가하락 영향 10주만에 최저

아시아시장에서 금 현물가격이 10주 만에 최저치인 온스당 600달러 이하로 추락했다고 1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란과 유럽연합(EU)의 핵 분쟁 관련 회담에 진척이 있었다는 소식에 이날 아시아시장에서 금 현물가격은 유가와 함께 하락세를 보여 전일대비 11.30달러(1.9%) 급락한 599.50으로 6월3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메릴린치는 최근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와 금값의 상관 관계가 8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제유가는 7월14일 배럴당 78.40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6% 떨어졌으며 금값은 같은 기간 9.7% 하락했다.
/연합뉴스

원산지표시 위반땐 3배 보상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 무허가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구매금액의 3배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추석을 맞아 위생적이고 믿을 만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갈비의 경우 '갈비 세트 품질 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해 총 3회에 걸쳐 산지 점검에 나서며, 총 5회에 걸쳐 DNA 검사도 실시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광수(왼쪽)씨가 11일 순천 선암사 입구 다원을 방문한 오자와 세이지(왼쪽 두번째), 상다회(常茶會) 대표 히데히코씨와 작설차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딸 선미씨.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신광수 명차' 세계茶人 입맛 잡는다

선암사 입구 15만평 재배 대일 수출 100억원 계약

순천 작설차가 일본에 수출돼 남도 명차(名茶)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순천 선암사 입구 15만평의 야생 차밭에서 '신광수 명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신광수(56)씨는 국내에서는 처음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5t, 100억원 규모의 고급차를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일본 수입업체는 세계적인 차 전문회사인 상다회(常茶會)로, 전 일본 고법판사이자 차 권위자 오가와 세이지의 아들 오가와 히데히코(小川豪比古)씨가 대표로 있다.

상다회는 '신광수 명차'를 고급 백화점과 호텔, 대형마트와 인터넷을 통해 일본 전역에서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히데히코씨는 세계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며 명차를 찾던 중 지난달 신씨를 일본으로 초청, 순천 차밭에서 생산되는 고급차 전량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내 홍보도 전담하기로 했다. 이어 오가와 부자는 11일 순천을 방문, 차 재배현장을 둘러보고 가공과정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기도 했다.

'신광수 명차'는 유기농법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연농법을 통해 키워낸 차잎을 오동나무 장작을 태워 덖어낸 '승설차(눈속에 움튼 햇싹으로 만든 차)'로, 100g에 130만원을 호가할 만큼 고급품으로 알려져 있다.

선암사 주지였던 부친 용곡스님의 둘째아들로 어려서부터 차와 인연을 맺은 신씨는 광양 매실장인 홍쌍리 여사에 이어 지난해 정부에 의해 전통식품 명인(18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신씨는 "생산·가공·포장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한국 야생차의 우수성을 일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